

교회 성만찬을 연장하여 나눔

소개

제 211 차 총회 (1999)는 회중 예배에서 격리된 교인들에게 교회 성만찬을 연장하여 나누는 조항을 규례서에 추가함을 확인하였다. 새로운 섹션은 다음과 같다:

성만찬 봉사는 두 명 이상의 안수 받은 교회 제직에 의해 공동체 예배에서 격리된 사람들에게 연장될 수 있다.

- (1) 그 성만찬 요소들은 성례전을 받기 위한 교회의 초청에 응답한 교회 교인들께, 모인 회중의 봉사를 직접적으로 확장하는 역할로서 예배를 드린 같은 날 또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한다.
- (2) 성경을 봉독함과 기도를 드림으로 말씀과 성례전의 일치가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 (3) 봉사하는 사람들은 당회 또는 권한이 있는 치리회로부터 이 사역의 신학 및 목회적 토대와 예식 자료에 대해 지도를 받는다. (W-3.3616e)

이 조항의 의도는 두 가지이다. 주님의 만찬에 정기적으로 자주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집에 갇혀있는 교인들에게 교회의 목회적 돌봄을 강화함이다. 이 조항은 또한 주님의 만찬을 축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회와의 교제에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교회의 단결을 강력하게 표명한다.

W-3.3616e 를 채택함에 있어 교회는 여러 가지 고립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목회 사역을 위한 기회를 포용하였다. 이 새로운 조항은 성만찬의 중요성과 의미에 관한 신학적 대화를 위한 중요한 분야를 열었다.

연장된 성만찬 조항은 특히 "특별 행사", 및 "병자 방문과 공공 예배와 격리 된 행사"와 같이 주님의 성만찬을 관찰하는 기존 관행을 보완하고 추가한다. 익숙한 관례 또는 "특별 관례로서의 주님의 성만찬"(W-2.4010)은 예배와는 별도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과의 성만찬을 적어도 한 명의 다른 교회 교인과 함께 거행하도록 목사를 허락한다. 교회 성만찬의 연장 봉사를 위한 새로운 규정(W-3.3616e)은 함께 봉사하는 제직들이 예배에서의 빵과 잔을 성만찬에 참석할 수 없는 교인들에게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함이다.

다음 차트는 이 두 경우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별 성만찬 예배:

- (1) 집에서 드리는 성만찬은 교회예식과는 별개이다.
- (2) 심방은 편안한 시간에 정해질 수 있다.
- (3) 목사가 반드시 집례한다
- (4) 심방 성만찬은 간략하게 할 수 있으나 성례전의 전체를 담고 있다.

성만찬의 연장:

- (1) 집에서 드리는 성만찬은 모인 회중의 연장선에 있다.
- (2) 심방은 주일예배 후에 이루어진다.
- (3) 당회가 목사와 함께 혹은 목회자 없이 장로와 집사들을 교회본당에서 보낸다.
- (4) 심방 성만찬은 성경을 읽고 기도와 함께 빵과 잔을 제공함으로 이루어진다.

집에 갇혀있는 교인들을 위하여 교회의 성례 사역을 제공하는 이 두 가지 조항은 보완적인 것이다. 즉 어떤 교회에서나 주님의 성만찬의 특별 관례와 교회 성만찬의 연장 봉사가 나란히 시행 될 수 있다. 때로는 교회에서 성만찬 연장 프로그램이 시행 될 때에도 주님의 성만찬을 집례하는 목회자와 다른 사람들이 적시에 가정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 다른 상황에서는 목사가 가정을 심방하고 있는 경우에도 교회의 성만찬에 더 자주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정기적인 성만찬 연장 프로그램을 통해 더 잘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성만찬의 연장 봉사를 위한 목회적 필요가 중요하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의 활동에서, 집에 갇혀있는 교인들과 성만찬을 갖는 것은 예배 드리는 교회와 떨어져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친교, 기도 및 성만찬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교인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인과 병자들을 포함시켜 주님의 식탁에 함께 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또한 성만찬을 추구하는 이니셔티브가 교회 교인에게 맡겨지면 많은 사람들은 바쁜 목회자에게 가정 방문을 요청함으로써 더 많은 짐을 지게 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경우 집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잊혀지거나 교회의 성만찬에 가끔씩 포함될 뿐이다.

이 현재 현실의 의미는 엄청나다. 특별 조치로 인해 반드시 성찬을 지키기 위해 "분리된" "특별 제공" 조항이 필요하지만 연장된 성찬식은 정기적으로 거행함으로 집에 갇혀있는 교회 교인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것은 집에 갇혀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중요한 증거이며, 그들이 집회 예배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교회의 공동체가 본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예배하는 회중에게 일깨워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연장된 성만찬에 대한 조항은 당회가 성만찬을 기념하는 당일에 교회의 같은 식탁에서 사랑을 나눌 때마다 집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창출한다. 장로들과 집사들은 성전에 다가올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교회에서 파견 될 것이다. 집에 갇혀있는 회원들은

주님의 식탁에서 기도로 기억하고 지명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봉독한 성경본문과 기도는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반복된다.

연장 성만찬의 관행은 대부분의 장로교인들에게 새로운 것이지만 초기 교회의 관행이었으며 성례전에 대한 개혁주의적인 이해와 완전히 일치한다. 초대 교회에서는 집사들이 예배에 결석한 사람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져갔다. 성만찬을 교회 일치의 표현으로 일찌감치 강조한 것은 성만찬에서 누구든지 빼놓지 않기를 위하여 만들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성만찬의 특별 순서의 더 익숙한 패턴은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와 교회 교인의 존재를 통해 교회와의 연결을 유지함에 있다. 그러나 연장된 성만찬 활동은 교회 밖에서의 성찬식을 교회 회중과의 성찬식으로 연결하여 준다. 두 가지 방법 모두에서, 말씀과 성례전의 일치하는 성경 봉독과 기도 준비에 의해 유지된다.

어떤 경우에도 연장된 성만찬 규정은 목회자들이 고립된 교회 교인들과 성만찬을 나누고 방문할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성만찬의 연장 및 특별 심방으로 격리된 교회교인을 주님의 성만찬에 포함시키는 일은 교인이 요청하기에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오히려 교회가 먼저 초대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교인들은 언제든지 가정 성만찬 심방을 요청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 몸의 통일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회가 먼저 제안하여야지 교인의 요청을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W-3.3616 조항은 교회 성만찬 봉사를 위한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회의 예배자료 (W-6.3011)에 대하여 당회를 인내한다. 이 자료는 연장된 성만찬을 충실하고 유익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예배의 종류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로와 집사가 사용하는 표본 예배 순서는 설명적 메모와 실제적인 제안을 동반한다. 지역 관습과 선택은 특정 지역의 관행과 이러한 자료의 활용을 지시 할 것이다. 더 많은 자료는 장로교예배서 *Book of Common Worship* (웨스트민스터 존 녹스 출판사, 1993)에서 찾을 수 있다.

역사, 신학, 및 실천

역사

연장된 성만찬은 초대 교회의 고대 관습으로 현대 회중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빵과 잔을 주님의 식탁에서 "결석한 자들"에게 봉사하는 관습은 순교자 저스틴의 *첫 번째 변론*(로마 시에서 약 155 년에 기록)에서 두 번 입증되었다. 문단 67 은 말씀과 식탁에 대한 전형적인 주일 예배 순서를 기술한다:

기도를 마치면 빵을 포도주와 물과 함께 먹습니다. 집례자는 기도와 감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제공하며,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동의어를 노래 부릅니다. 감사의 말과 함께 각 사람이 참여하며 사물을 나눕니다. *그리고 결석한 사람들에게 집사를 통하여 사물을 보냅니다.* (강조를 위해 이탤릭체 추가)

65 항은 세례를 마친 후 주님의 성만찬의 축하를 묘사한다.

집례자가 감사를 표하고 회중 전체가 동의했을 때,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참여한 사람들에게 감사가 선포된 빵과 포도주와 물의 일부를 나누어 주고, *그들은 결석한 사람들에게 가져갑니다.* (강조를 위해 이탤릭체 추가)

교회 역사에서 이러한 관행의 선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 관행을 모방해야 하는 이유는 초대 교회가 그것을 했기 때문 만은 아니다. 연장된 성만찬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커뮤니온의 본질을 구체화한다. 부활의 결과로 살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구성원도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생략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주님의 만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일치의 핵심적인 살아있는 표시였다. 빵과 포도주는 회중의 모든 교인들에게, 심지어 주님의 날 예배에 빠진 사람들에게조차 나누어졌다. 이 고대의 이해는 주의 만찬의 중요성을 개인 신자들에게 갖는 개인적인 의미로 제한하려는 성향을 시정하도록 현대 교회에 제공한다. 우리 시대, 그리고 초기 교회와 마찬가지로, 성례전이 갖는 단결의 표시로서의 이 중요성은 결코 작은 사안이 아니다.

16 세기 개혁 교회가 연장된 성만찬을 실천하지 않았거나 예배에 결석한 사람들에게 성만찬을 가져갈 수 있는 다른 조항을 만들지 않음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종교 개혁 당시에는 경건의 사용을 위한 성만찬의 "개인 미사" 및 "보관"을 포함하여 중세 교회의 성례전 관행에 대한 남용이 널리 퍼져있었다.

"개인 미사"의 확산은 집례하는 사제는 필수적이지만 참여하는 회중은 필요치 않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성만찬 요소에 대한 숭배는 모인 교회와 함께 빵과 포도주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잘못 이해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16 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모인 회중이 함께한 교회에서의 주님의 식탁에서만 그리스도가 임재 하신다고 주장했다.

장로교인들 중에는 거의 400 년 동안 병자나 집에 갇힌 자들을 위한 성만찬 규정이 없었다. 1932 년까지 공동 예배서 *The Book of Common Worship* 에는 목사의 재량에 따라 병자를 돕기 위해 사용된 "간단한 성만찬 예식"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25 년 후 북 장로교 예배 모범서(UPCUSA)는 현재의 조항 (W-2.4010)을 추가했다.

연장된 성만찬의 실행은 성찬예물을 "보관"하는 중세의 관습과 유사점이 있으며, 봉헌된 빵과 포도주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성소 밖으로 옮겨 졌다고 주장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장된 성만찬은 성례예물 보관과 크게 다르다. 그 목적은 주님의 날 경배와는 별도로 사적인 경건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연장된 성만찬에는 그 예배와 교회의 공동 생활에서 고립된 사람들이 포함된다.

그리스도의 온 몸의 통일성과 교회 교인들의 사역의 완전성을 위해서, 예배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과 친교를 맺는 오늘날의 관행은 강력하다. 특별 관례 또는 연장된 성만찬을 통해 성취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목회적 필요는 분명히 드러난다.

신학

말씀과 성례전의 일치하는 개혁주의 신학과 예전 관습의 기본이다. 집에 갇혀있는 교회 교인들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성례전은 교회가 그들에게 가져올 때만 성찬을 나눌 수 있다. 이것은 교회의 모든 커뮤니티 교인들에게 우리의 목회적이고 영적인 의무를 일깨워주는 것이다. 연장된 성만찬은 말씀과 성례전이 교회와 함께 모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것을 상상케 한다. 성만찬은 주님의 식탁에서 회중의 축하로 빵과 컵을 제공함으로써 연장된다. 말씀은 성경과 기도와 다른 적절한 준비 또는 선포 형식으로 확장된다. 최근의 연장된 성만찬과 특별 관례에 대한 조항은 칼빈의 필수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들리며 성례전이 바르게 시행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발견된다."(*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4.1.9).

주님의 식탁에서 드린 대 감사기도는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도 할 때 빵과 포도주가 거룩한 선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이러한 성례전의 표징을 고립된 교회 교인들에게 가져갈 때,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지지하는 교회에 존재하고 계신다.

실천

연장된 성만찬의 실천은 주님의 식탁에서의 말씀과 성례전 목사의 권위(W2.4012c)와 사람들에게 빵과 잔을 제공하기 위한 제직(그리고 당회가 임명한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신중하게 보존한다(W-3.3616d). 연장된 성만찬은 장로와 집사에게 적절한 목회 사역을 수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장된 성만찬은 장로와 집사가 교회의 이사회나 교회 프로그램의 운영자에 대한 기업의 의사 결정자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이다.

연장된 성만찬에 참여하는 장로는 "자신들의 책임을 지도록 회중의 신앙과 삶을 강화하고 양육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배와 봉사에 격려하며," "사람들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돌보아 줄"수 있으며 G-6.0304) 그들의 제직으로서의 영적인 면을 행사한다. 또한 장로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설교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을 수도 있다)" (G-6.0304) 장려 되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장된 성만찬 방문은 장로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이 부름을 수행하면서 말씀에 대한 간략한 해석을 제안한다.

집사들은 불우한 사람, 병든 자, 친구가 없는 자, 고통 당하는 자에게 봉사하기 위해 부름 받는다. (G-6.0402). 특히 집사 사역은 "중보기도, 성경 읽기, 사람들의 은사를 세워주기, 주님의 성만찬을 도우며 사람들을 예배에 인도"(G-6.0402)하는 일을 포함한다. 교회의 성만찬 연장 봉사는 이러한 영적인 은사를 행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주님의 식탁에 있는 집례자로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역할은 변하지 않았다. 목사는 연장된 성만찬에서 장로와 집사가 개 교회 회원을 방문하고 주님의 식탁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자신의 목회적 의무로부터 변명하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장로들은 연장된 성만찬의 사역을 통해 특별한 필요가 더 잘 충족되는 시기와 주님의 만찬의 특별 강령을 제공함의 더 적절한 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연장된 성만찬 봉사가 특정 교회의 사역으로 수행 될 때, 성만찬의 목회적 해석을 위한 기회는 장로와 집사의 훈련과 전체 성도들에게 성례전의 의미에 대한 신중한 해석을 통해 풍부해진다.

고려 사항

연장된 성만찬 봉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성례전 신학을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이다. 신학 및 예배 사무국은 예배 모범 2 장과 3 장을 공부할 것을 권장하며, 성서와 주님의 만찬에 대한 부분에 특별히 유의한다. 신앙 고백서에 있는 주의 만찬에 대한 더 많은 연구 (4.075-4.082, 5.193-5.210, 6.161-6.168 및 9.52)도 권장된다. [그리스도께로의 초대: 세례반과 성찬상](#), (우리말 번역본, 2006)은 교회의 성례전 신학과 실천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또 다른 자료이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교회 공동체의 연장된 성만찬 봉사는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식탁의 축복과 친교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나 그룹을 위한 예배의 개별 시간 또는 사적인 헌신의 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장로와 집사의 부름을 할 때 특히 성찬식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 목회자는 그들의 목회적 봉사를 위한 준비로서 가정에서 있는 성만찬 방문에 그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한 세션은 연장된 성만찬을 목적으로 주님의 식탁에서 하나의 행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성만찬 요소 중 일부를 따로 떼어놓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적합하며 출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회중에게 시각적으로 알림을 제공한다. 연장된 성만찬 봉사를 위해 준비된 "자료"는 익숙한 성만찬 도구와 함께 식탁 위에 놓일 수 있다. 집례자인 목사는 주일 예배 직후에 연장된 성만찬 봉사를 위해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놓거나 성만찬을 위하여 지정된 장로와 집사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어 성전을 즉시 떠나 연장된 성만찬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 이 행동은 식탁에 없는 사람들을 포함시켜 모인 회중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연장된 성만찬 방문 예약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사자가 조절할 수 없는 식사 시간, 치료 일정, 및 기타 활동에 대해서 고려하여 피하도록 한다. 연장된 성만찬 봉사에 참여하는 장로와 집사는 목회자와 모인 회중을 위하여 봉사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함이 적절하다. 연장된 성만찬 봉사팀은 두 개 이상의 장로나 집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것이 전체 교회의 축하라는 명백한 신호가 되어야 한다. 각 팀은 주님의 날을 위한 봉사 예식을 통해 각 교인과 함께 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회중이 일반적으로 인쇄된 예배 순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각 해당자에게 교회의 예배 기록을 제공하도록 고려한다.

예배 순서에 대한 해설

연장된 성만찬 봉사를 위해 여기서 제안된 예배 순서는 일반적인 주일 예배로 *공동예배서 Book of Common Worship*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에서 채택되었다. 이 예식은 간단하지만 말씀과 성례전 사이의 중요한 연결 고리를 유지한다. 성만찬이 아무렇게나 또는 변론의 의미로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주님의 성만찬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의 눈에 보이는 표시이다. 교회의 성만찬을 제공하는 장로들과 집사들은 말 그대로 복음의 사자들이다. 기도, 성경, 및 성찬의 요소는 기쁨과 감사로 나누어야 한다. 장로는 권위와 진실성, 확신을 가지고 중요한 말을 전하기 위해 용서와 축복에 대한 확신을 암기해야 한다. 여러분의 당회는 당신의 교회 예배 문화를 보다 완전하게 반영하는 다른 요소를 여기에 추가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각 상황에 따라 연장된 성만찬의 순서에 있어 신속한 창의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할 때 다음 순서가 예배의 기본 패턴으로 추천된다. 각 예배자의 신체 조건과 연령 및 이해 수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는 전체 교회의 축하이기 때문에 가정이나 의료 시설에 성만찬을 가져 오는 것은 단순히 빵과 컵을 고립된 장소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개인을 전체 교회 예배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교회를 출발하는 연장된 성만찬 봉사팀에 앞서, 목사는 다음 또는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기도 할 수 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의 떡으로
엘리아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심과 같이
이 성례전에 임한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양육시키사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속한
우리의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우리도 알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교회 성만찬을 연장하여 나누는 예배 순서

팀 멤버들은 항상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거나 비슷한 말로 시작한다.

우리는 () 교회에서 온 ()와 ()입니다. 교우님을 방문하여 교회 성만찬을 나누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장로와 집사는 피심방자와 시간을 가짐으로써 교우의 관심과 기쁨을 듣고 기억하여 기도에 반영한다. 모두가 성만찬을 나눌 준비가 되면, 빵을 꺼내고 잔에 부음으로서 준비를 한다. 장로와 집사는 참석한 다른 이들이 있으면 함께 예배하도록 초청한다.

환영의 인사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 아침 우리 회중이 모여 주님의 성만찬을 나누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야기를 다시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감사하며 다음과 같이 기억하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또한 성령의 선물로서 주님의 임재 하심을 확인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생명의 떡과 축복의 잔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과 교통함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고백

상황이 허락한다면 다음과 같은 혹은 비슷한 죄의 고백의 기도가 이어진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잃어버린 양과 같이 실수를 범하고 주님의 길에서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편리와 욕망을 심히 좇아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자들을 용서하소서.
참회하는 자들을 주님의 약속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하소서.
그리고 허락하시길, 오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부디 거룩하고, 의로우며, 겸손한 삶을 위해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영광스러이 살게 하옵소서.

용서의 선언

장로는 말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삶은 지나갔습니다.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봉독

성경봉독은 아침 설교 본문을 읽는다. 이 때 집사가 말씀을 읽음이 적절하다.

말씀의 해석

연장된 성만찬 봉사팀에게 목사는 아침 설교의 간단한 요약을 제공하거나 팀원 중에서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여 전할 수 있다.

주일예배에서의 개회기도 혹은 대표기도를 전한 후 주기도문으로 마친다.

성만찬

떡과 잔을 나누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감사와 중보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다음과 같이 혹은 비슷한 기도를 한다. 이 때 집사가 기도를 인도함이 가장 적절하다. 개인 혹은 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추가할 수 있다.

자비의 전능하신 하나님,
매일 매일을 새롭게 하시며
살아나신 주님의 영광을 가져온
부활의 새벽을 우리는 감사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감사 드립니다:

주님 창조의 아름다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
모든 용서와 치유의 선물...
가족과 친구의 지속된 사랑...

주님의 교회에서의 신앙의 교제...

자비하신 전능의 하나님,
이 지친 세상을 새롭게 하시사,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곳에 평화를 허락하소서.

특별히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인들을 위하여...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 받는 나라들의 백성들을 위하여...
평화와 화해를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지구를 회복하고자 애쓰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며,
출발점이자 안식처인,
그리고 매일 매일의 여정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우리의 손을 사용 하시사
주님의 창조사역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 하시사
이 세상을 위하여 주시는 새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이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 복

장로가 말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기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너를 바라보시며 너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떠나면서, 봉사팀이 성만찬을 갖고 다음에 언제 올 것인지를 알려준다.

보통 심방은 20-30 분이 적당하다. 봉사팀원들은 피방문자가 피로해 하거나 불편한 점들을 민감히 잘 파악하여 예배에 적절히 반영할 것을 권한다.